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안된다” 한목소리

지역문화계, 임기만료 이사진도 대폭 교체 촉구 이사회 공동책임져야... 창의적 인력 수급 필요

광주지역 문화계가 광주문화재단 이사회의 연임 추천을 받은 현 노성대(72) 재단 대표이사의 연임불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컨텐츠 타워로서 한계를 드러낸 재단을 이끌어온 인사를 재추대하는 것은 개혁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여망을 저버린 행태라는 것이다.

문화계는 또 대표이사사와 함께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진도 역시 대폭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회의실에서 제13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재추천했다. 그동안 직원 부당 채용, 직원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을 야기한 재단의 책임자로서 올해 초 사퇴의사까지 밝힌

바 있던 대표였기에 이번 이사회의 재추천 결정에 문화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재단 기금 모금에도 제약함을 못하는 등 업무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표이사 교체에 집중했었기 때문이었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재단과 관련한 모든 논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는데도 연임을 추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 상태로라면 광주시의 ‘꼭두각시 노릇’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안에서도 연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단 직원 B씨는 “현 대표의 경우 성품 등에서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좋지만 재단을 이끌어 갈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려

의 목소리가 많다”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임기의 대표직을 맡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사진들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어 광주시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회는 이날 현 선임직 이사 11명 전원을 포함한 31명을 2기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등 상식밖의 결정을 내려 비난을 사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이사들도 대폭 갈아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련의 문화재단 문제에 공동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다 이사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0~70대(11명중 10명)에 불과하여 창의적인 젊은 문화 인력들을 수급, 균형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심인아씨는 “광주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표이사과 이사장의 책임도 크지만 최고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공동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 현 이사진이 모두 포함된 ‘셀프 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말했다.

또 다른 문화계 관계자는 “임기가 동시에 마무리 되는 현 이사진들이 차기 대표이사를 추천한다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사들의 연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 앞서 일부 문화단체들이 현 방식의 대표 추천제보다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사회는 향후 공모제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해외 교류사업에 참여했다가 음주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단 직원 이모 차장에 대해 지난 20일자로 대기발령을 냈다.

재단 관계자는 “광주에서 파견오는 정모 실장의 경우 광주시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이 차장과 함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빠르면 23일부터 광주시 감사가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市산악연맹·녹색연합·광주일보 공동 ‘무등산국립공원포럼 창립 세미나’

“무등산 원형 보존” vs “이용편의시설 설치”

학계·환경단체 등 200여명 참석... 공동대표 5명 선출

무등산이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거듭나려면 현 자연상태를 가급적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훼손을 막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영장과 캠핑장 등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산악연맹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제1회 무등산국립공원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의 공통점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며, 인간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면서 “데크 등을 설치해 인간의 접근을 쉽게 하고, 많이 오게 하면 국립공원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매년 수십만명이 무등산 꼭대기(정상)를 꼭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무등산 정상 밑에서도 얼마든지 무등산의 스토리를 즐기면 된다”면서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미국을 비롯한 (국립공원) 선진 국가에서는 탐방객 숫자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시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무등산의 중장기 관리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인간이 우선(중요)이나, 자연이 우선(중요)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국립공원 관리방식이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면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 탐방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자연훼손 등을 막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무등산에 1차적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 야영장, 탐방지원센터 등 탐방기반시설을 설치해 접근성 등을 개선토록 하겠다”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국립공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로를 비롯한 탐방로 등급제 등 맞춤형 탐방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다만 “이러한 시설물의 확충에 앞서 자연환경 영향평가 등을 선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조오섭 광주시의원, 김동수 광주시공원녹지과장, 정후식 광주일보



광주시산악연맹과 광주·전남 녹색연합, 광주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무등산국립공원,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편집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무등산국립공원,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성기 교수는 “무등산은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조오섭 시의원은 “특정 구역을 정해 오코캠핑장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산국립공원포럼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 및 창립행사는 강운대 광주시장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 환경단체, 산악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행사에서 무등산국립공원포럼 공동대표에는 임형철 광주·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와 이성기 조선대 교수, 현지 원효사 주지스님, 최양남 광주YWCA 회장, 강성두 변호사 등 5명이 선임됐다. 이날 포럼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후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진료소’ 역할과 향후 계획

이주여성 소식 전하는 문화적 공간 ‘광주인술’ 동남아 전파 전진기지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은 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동남아시아에 나눈다. 대동의 ‘광주 정신’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글로벌 광주로의 도약을 위해 아시아 속의 광주, 광주 속의 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고, 결혼 이민자 증가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광주진료소는 향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의 선진 의료기술을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전파함으로써 ‘광주 인술’(仁術)을 통한 동남아 국가에 또 다른 ‘한류’(韓流)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캄보디아에 1호 광주진료소를 세운다는 광주에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여성이 많은 데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킬링 필드’라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에는 현지인의

사와 간호사 각 1명씩이 상주해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캄퐁스푸 주(州) 정부의 추천을 받아 현지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사회 등의 도움과 광주지역 각 대학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들의 의료진들이 2개월에 한 차례씩 광주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광주지역 의료진들의 진료는 내과와 외과, 안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료소 개설에 필요한 건축비와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비 등은 광주시와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광주일보와 (사)희망나무, 광주시 공동모금회가 함께 광주 진료소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광주 진료소 사업을 민간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사업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캄보디아 이외에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 2, 3호 진료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종수=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오삼오론 주지사 인터뷰

“의술 베풀 광주시민들에 감사”

“광주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요”

오삼오론 캄보디아 캄퐁스푸주(州) 주지사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이 곳 캄퐁스푸에 광주시민들이 진료소를 설립해준 것에 모든 지역민과 주 정부 간부 및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실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광주진료소를 통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혜택도 좋지만, 광주진료소가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캄보디아에 전달해주는 창구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곳 캄퐁스푸 주는 모자(母子)건강과 전염병 예방 등에 신경을 쏟고 있다”며 “광주진료소가 좋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삼오론 주지사는 “광주진료소

의 설립으로, 대한민국 광주시의사들의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교육 및 각종 봉사활동 등이 이곳 주민들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진료소의 발전과 캄퐁스푸 지역의 발전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주진료소가 캄보디아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캄퐁스푸 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캄퐁스푸 주에서도 모든 부문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실험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 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 **강사 파견 업무**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해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단체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 추천 회원 | 재혼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등산 여성' 희망 31~58세 |
|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지너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서신동) (063) 275-7766